

# 완도신문 창간 33주년 기념사

완도군민의 대변지로서 올바른 언론의 길을 걸어오신 완도신문 창간 33주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완도신문 김정호 대표님과 신문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애독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언론은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크나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완도신문 역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군민과 군민, 군민과 자치단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완도신문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민의 바람에 충실한 언론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며 33년 동안 완도신문과 동고동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신 완도군민과 독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완도신문이 주민과 독자의 편에서 완도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모습을 아우르며 여론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항상 다정한 언론으로 함께 남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완도주민을 대표하는 완도군의회가 주민이 신뢰  
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완도신문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방의정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완도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완도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1.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